

세계 지도자들은 외교 현장에서 DJ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내 결엔...

김경주 지음

詩劇으로 본 상처투성이 삶

제목이 인상적인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내 결엔...'은 김경주 시인의 시적 궤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집이다. 왕가위 감독의 영화 '동사서독'에서 장만옥이 흘러간 사람을 회상하며 읊던 대사다. 영화 속 시적인 감성과 여운이 시집의 제목뿐 아니라 내용 속에도 오롯이 담겨 있다.

'시가 된 이야기'라는 수사가 붙은 것처럼 시집은 상당부분 시극(詩劇)의 형식을 띠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서사가 각광받는 시대에 시극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상상과 극적 요소를 담은 시집은 그 자체로 각별하다. 이 작품은 저자가 신촌 한복판에서 만났던 실제의 인물에서 시작되고 이를 고리로 전개된다. 상처투성이의 인생들을 아름다운 시극으로 형상화하는 솜씨가 만만치 않다.

저자는 200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김수영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열림원·9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에릭 바인하커 지음

전통경제학 깬 新 경제론

뉴욕타임스가 "현대경제학에 대지침을 일으킨 기념비적"이라고 평했던 에릭 바인하커의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가 나왔다. '불완전한 과학'으로 비판받는 전통경제학을 무너뜨린 경제학이라는 세간의 평답게 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 현실을 진단한다.

애덤 스미스 이후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은 무한대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지난 100년간 인지심리학, 유전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은 전통경제학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는 이전의 전통경제학의 오류를 증명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이론을 집대성한다.

저자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전통경제학의 오류를 증명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이론을 집대성한다.

<알에이치코리아·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증언-외교를 통해 본 김대중 대통령

김하중 지음



대통령은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세계무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까? 많은 사람들은 어렵듯이 짐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나랏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일반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자칫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을 계기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시간' 내용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고발한 상태다.

회고록(자서전)은 담고 있는 내용, 재임 중 과오 여부 등에 따라 휘발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혹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역사 왜곡' 논란도 부를 수 있다. 또한 장르 특성상 구술하거나 기술하는 주체가 당사자인 관계로 객관성이 온전히 담보되기도 어렵다.

남북정상회담 등 수십차례 외국 방문·정상회담 뒷얘기 리더십·업무 처리 등 '외유내강'형 김대중 대통령 소개

그와 달리 증언은 다소 차이가 있다. 당사자보다 제 삼자 또는 관찰자가 주체(주인공)의 행적을 말하거나 기록함으로써 일정부분 객관성이 담보된다.(물론 팩트에 근거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누렸던 외교 현장과 뒷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중국대사를 지낸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의 '증언'은 당시 외교 상황과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관찰했던 기록을 담고 있다.

책은 대통령의 일상 가운데서도 외교 활동,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조명한다. 대통령의 20여 차례의 외국 방문, 40명에 달하는 외국 정상들의 방한을 통해 열렸던 수십 차례의 정상회담을 공개한다. 그뿐 아니다. 서울 ASEM 정상회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역사적인 순간도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DJ가 다른 정상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국익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소개한다. 또한 2000년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당시 있었던 이야기도 흥미를 끈다.

저자는 처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1994년 10월) 가졌던 느낌을 이렇게 말한다. "정치인인데 얼굴에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행동에는 과장이

없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쏟아져 나오는 말의 폭과 깊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웠으며, 연설에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다양한 일화를 통해 드러난 DJ의 리더십과 업무 처리, 인간적 면모는 '외유내강' 스타일에 가깝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풍부하고 정확한 지식, 냉철한 판단력이 이를 방증한다.

저자는 원래 직업 외교관이었기에 외교를 근거로 김 전 대통령의 면모를 바라본다. 사적인 감정이나 주관과 가지고 미화하려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단지 외교를 통해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이 DJ를 어떻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하는지를 담담하게 드러낼 뿐이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김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을 알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분명 영웅이었으며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비전과리더십·2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북정상회담 후 6·15 공동선언 서명식(2000. 6. 15)<위>.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2000. 10. 20)<아래>

비정상? 정상의 기준부터 가리자



정상과 비정상의 과학

조던 스몰러 지음

제목처럼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비정상인가? 과연 그 경계가 어디인지 명확히 말할 수 있을까?

사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증후군들이 존재한다. 결정 장애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 반이웃 증후군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뿐 아니라 공포증도 시간 공포증, 숫자 공포증을 포함해 무수히 많은 공포증이 존재한다. 심지어 미

국 인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일 평생 최소한 번은 정신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았다는 결과도 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조던 스몰러 교수가 펴낸 '정상과 비정상의 과학'은 비정상을 정의하기에 바빴던 현대 정신의학과는 달리 '정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기본(정상)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이를 벗어난 것(비정상)을 확실히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정신 질환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이전에 정상에 대한 논의부터 하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외형상 뚜렷이 보이는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에 따르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낮과 밤의 경계처럼 명확

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저자는 '정상의 생물학'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우리의 뇌와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안되어 있는지 해답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장애가 인간이 겪는 경험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묘사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엄청나게 눈에 잘 띄도록 드러내는 인성적인 증상으로부터 증후군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겪는 경험의 가장자리에서 인간 내면을 탐색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바람에, 정상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고려하는 개념이 되고 말았다." <시공사·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21세기 기자가 해야 할 10가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빌 코바치·토머스 로젠스틸 지음

인터넷 검색포털 마다 저마다의 정보를 얻기 위한 검색이 일상화 되면서 언론의 영향력은 크게 떨어졌다.

인터넷 네트워크에 무한정한 정보원들이 존재하고 불로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글을 읽고 쓴다. 모든 사람이 편집자이자 기자가 됐다.

언론은 왜 영향력을 잃었다. 소셜 미디어 시대에 기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널리즘의 최우선 임무는 무엇인가...

21세기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이정표가 되어 줄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 출간됐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지국장을 지냈던 빌 코바치와 LA타임스에서 미디어 담당기자로 일했던 토머스 로젠스틸이 쓴 책으로 세 번째 개정판이다.

저널리즘의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해 준 저자들이 저널리즘의 원칙 열 가지를 제시한다. 여러 가지 기술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들이다. 정보 기술이 발달되면서 언론의 독립적 지위가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최우선 임무를 기술이 대체할 수는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5회 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